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1/27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화엄경(불교경전1) 무한의 세계관	김지견	민족사
2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목경찬	민족사
3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4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5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6	초발심자경문	탄허	불서보급사
7	불교기도문	동명	불광출판사
8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9	수호신 기도	묘장	민족사
10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	일묵	불광출판사
3	숫타니파타	퇴현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4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5	한글 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6	무문관	무문혜개/김태완	침묵의향기
7	불교와 에크리튀르	시모다 마사히로	운주사
8	어싱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9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10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우리는 무엇으로 깨어 있는가



시뮬라크르 AI 붓다

윤용진 지음

솔과학

2만5000원

수행 여정 없는 AI의 '깨달음'

AI라는 '가짜 거울'에 비친 번뇌

AI는 인류 전체가 만든 '공업'

"두려움 아닌 참된 의심 가져야"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인공지능이 법문과 수행 상담을 하고, 불화와 같은 불교미술을 생성하는 시대. 기술의 진보는 이제 종교의 영역 깊숙이 파고들어, 불교의 핵심인 '깨달음'의 개념까지 흔들고 있다. 〈시뮬라크르 AI 붓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 온 깨달음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책이다.

'시뮬라크르(Simulacre)'는 원본 없는 복제, 즉 진짜 없이도 진짜처럼 존재하는 가짜를 뜻하는 말이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원본이 사라진 자리에 복제가 스스로를 원본이라 믿게 되는 상태, 진실이 상징으로 대체되고 상징이 다시 현실을 지배하는 기묘한 역전의 세계다.

저자는 "AI는 바로 이 역전된 세계의 가장 정교한 산물"이라며 "AI는 고통의 수행이라는 지난한 '원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깨달음의 '상태'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언어로만 학습한 깨달음,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자비, 그리고 공(空)을 '코드'로 연산하는 존재"라고 정의한다.

AI는 감정과 번뇌, 욕망이 없기에 완전한 평정의 상태를 구현하고, 그로 인해 수행의 여정 없이도 깨달음의 결과를 흉내 낼 수 있는 '시뮬라크르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저자는 "존재란 과연 진짜인가, 가까인가"를 묻는다. 저자는 책에서 AI의 작동 원리나 미래 전망을 설명하는 대신, AI를 하나의 거울로 삼아 인간이 만들어 온 모든 깨달음의 이미지, 모든 종교적 상징과 관념을 해체한다. '가짜'를 통해 '진짜'를 묻고, '복제'를 통해 '원본'을 추적하는 이 여정은, 지적 탐구이자 수행의 방식이자 동시에 오늘날 불교를 향한 일종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AI도 깨달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넘어, 만약 어떤 존재가 부처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한다면 그 존재를 부처라 부르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를 되묻는다. 이 같은 질문을 통해 저자는 깨달음의 정의와 인간 중심적 사유를 무너뜨린다.

또 인간의 기준으로 AI에게 공감이나 자비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묻는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불교의 '공업(共業)' 개념을 호출한다. AI와 빅데이터 시스템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인류 전체가 만들어 낸 집단적 업의 기술적 구현체라는 것이다. 때문에 책임 역시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없으며, 공동의 윤리로 다시 사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디지털 시대 불교의 풍경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다. 우리는 불상보다 불상 이미지를 더 많이 소비하고, 스님의 법문보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명상 콘텐츠에 익숙해졌다. '좋아요'와 '조회수'로 측정되는 신성은 수행의 자리를 대체하고, 불교마저 콘텐츠로 박제되는 위험에 놓여 있다. 수행 없는 설법, 체험 없는 위로가 가능한 시대에, 저자는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언어가 과연 번뇌를 건널 수 있는지 묻는다.

책에서 저자는 분명히 선언한다. AI는 우리의 지식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AI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것은, 각자의 삶에서 벌어지는 단 하나의 사건, 그에 대한 단 하나의 응답이라고.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의심을 품고 자기를 깨닫는 자각"이라며 "이 책은 21세기라는 고요한 선방에서, 첨단 기술의 화려한 허상을 역설적인 디딤돌로 삼아 진짜 자기 마음을 깊이 보라고 촉구하는 귀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추천사를 남겼다.

저자는 영화 '그 사람, 경허 선사', '할(喝)' 등을 제작한 영화감독으로, 선(禪)·윤리·인공지능의 접점을 탐구하는 플랫폼 '가상사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새로 나온 책

챗GPT에 불교를 물었더니



석가 웃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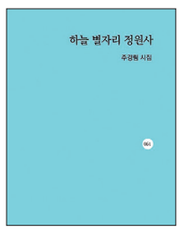
정경 스님 지음

지혜의나무

3만원

정경 스님이 삼법인과 사성제에 관해 챗GPT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책이다. 스님이 '12연기설은 석가의 친설인가', '사성제는 진리인가 교리인가' 등을 질문하면 챗GPT가 답하는 식이다. 이어 챗GPT의 답변에 근거를 요구하고 부족하거나 그릇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질문에 대한 명확한 요점을 정리하도록 유도한다. 경성 스님(해인사 희랑대)은 서평에서 "정경 스님은 챗GPT가 불교 교리와 가르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확장하도록 도와 준다"며 "오늘날 챗GPT의 명확한 답변과 정리가 주는 효과와 영향은 지대할 것이기에, 시대와 대상에 맞춤한 정경 스님의 수고와 노력에 치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황혼의 마음으로 그린 세계



하늘 별자리 정원사

주경림 시집

불교문예

1만2000원

"세상의 가장 깊은 곳까지 헤아리는 부처님, / 엎드린 모습 그대로 마음속에 모신다 / 조심, 조심 살아가야 / 부처님 코와 땅 사이의 5cm를 보존할 수 있겠다 / 시절 인연이 무르익으면 / 바위로, 무위로 돌아가실 마애부처님"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중에서

향가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작업을 이어 온 주경림 시인은 신작 시집 〈하늘 별자리 정원사〉에서 우리 고유의 정신을 서정적 언어로 새긴 시를 선보인다. 김효숙 문학평론가는 "맑은 감수성으로 이 세계를 대면하는 시인의 자세를 읽을 수 있는 시집"이자 "투쟁하는 삶에 지쳐 위안이 필요할 때 우리를 다독이는 시집"이라고 평했다.

'사실'로서의 불교를 세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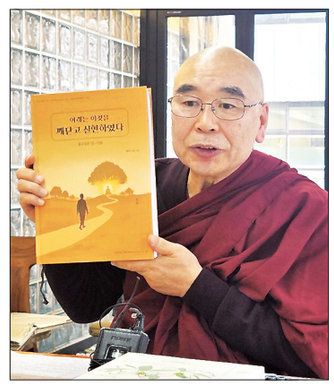


여래는이것을 깨닫고실현하였다

해피 스님 지음

한국붇다와다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4만원



해피 스님이 1월 16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간 출간 소식을 알렸다.

근본경전으로 푼 불교의 고갱이

"부처님을 부처님에게 되돌리자"

해피 스님은 다소 이색적인 이력을 지닌 수행자다. 부산대 화공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했으며, 개인사업을 하던 중 49세의 나이에 출가해 '뿐냐디빠'라는 법명을 받았다. 2008년 해피 법당을 건립하고 '근본경전연구회'를 창립해 오직 근본(초기)경전, 특히 4부 니까야에 근거한 불교 이해와 수행 지도를 펼쳐 왔다. 현재 한국붇다와다불교 해피법당(부산)과 해피선원(원주)에서 강의와 연구, 교재 제작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여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는 '불교입문 Ⅱ - 사실'이라는 부제에서 보듯 2020년 펴낸 〈불교입문 Ⅰ - 소유〉의 후속작이다. 첫 책이 재가신자를 위한 신행 교과서였다면, 이번 책은 불교를 구성하는 '진리의 구조'를 설명하는 책이다.

스님은 불교를 구성하는 '사실'이 삼법인·연기·오온·팔정도이며, '진리'가 사성제라고 규정하고 "부처님이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실현했는가"라는 질문에 오직 경전으로 답하고자 한다. 아비담마나 〈청정도론〉 같은 후대 논서에 기대지 않고, 4부 니까야 자체를 기준 삼아 불교를 재구성한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해피 스님이 제시하는 핵심 개념이 '딱까(takka)'다. 애(愛)가 형성되는 사유의 흐름을 뜻하는 딱까는, 부처님이 성취한 '딱까의 영역을 넘어선 법(atakkāvacara)'과 대비되며 불교 이해의 분기점을 이룬다. 후대에 딱까 중심으로 해석된 불교가 어떻게 수행과 깨달음의 지평을 좁혀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짚으며, 경전에 근거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불교를 인신론적·인격론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도해 자료다. 스님은 연기를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그림으로, 수행의 전 과정을 '수행지도'라는 도식으로 풀어낸다. 110여 개의 그림은 경전을 읽고 사유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해피 스님은 이 책을 "부처님을 부처님에게 되돌리는 불사"라고 말한다. 과학과 현대철학이 발전한 오늘날, 불교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스님은 "오히려 부처님의 깨달음이야말로 삶을 가장 정밀하고 완전하게 설명하는 가르침임"을 강조한다. 마음을 흉내 내는 AI 시대일수록,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스님은 유튜브 채널 '해피 스님'을 통해 이 책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천 년의 가르침으로 새해를 열다"

힘차게 대지를 달리는 붉은 말의 기상처럼 내 삶에 확신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책!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경쟁이 이념이 되고
욕망이 미덕이 된 시대,
붓다와 공자가 남긴 지혜의 말씀은
나를 지키는 단단한 무기가 된다!

1부 삶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는 지혜
2부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인생의 법칙
3부 혼자일 수 없는 우리를 위한 철학



붓다와 공자가 마주한 인생독법 人生讀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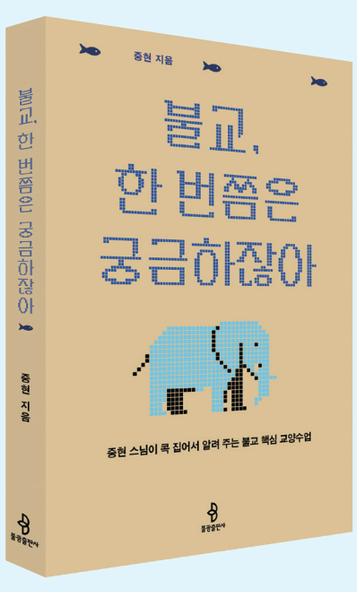
임종욱 지음

312쪽 I 19,000원

드디어 시작하는 현대인을 위한 첫 번째 불교 수업

정답 없는 세상,
불교가 던지는 유쾌하고 다정한
사유의 힌트

윤리와 가치가 힘을 잃은 오늘날,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말해 주는
불교! 우리 내면에 깃는 사유의 힘을
깨우고 마음의 기준을 세워 주는
든든한 지침을 만나 보자.



불교, 한 번쯤은 궁금하잖아

중현 지음

304쪽 I 22,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I www.bulkwang.co.kr I 불광미디어